맛이 예쁜 사과, 속이 썩은 사과

(사도행전 8장 26절~40절)

26.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2.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34.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맛이 예쁜 사과, 속이 썩은 사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맛이 예쁜 사과, 속이 썩은 사과'
본문은 다음 장과 이어지는 내용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여 교인으로 전향하는 사건이 기

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 이방인 선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동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앞서 제시된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이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술사 시몬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등장하는데 빌립 집사님을 통해 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방세계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은 받았지만 같은 팔레스타인 지방이었던 것에 비하여 에디오피아는 완전한 이방세계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립 집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이방세계에 대한 전도는 사도 바울로 이어지면서 본격화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본문 말씀에서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이방세계에 대한 전도가 시작되는 단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령께서는 두 사람을 대비시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두 인물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술사 시몬이고 본문에 기록된 에디오피아의 내시입니다. 이 두 인물은 이방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계열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계열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문제시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이는가를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임의 문제에 있어서 이 두 계열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마술사 시몬의 계열은 “속이 썩은 사과”라 할 수 있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계열은 “맛이 예쁜 사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 이방세계의 선교가 본격화되는 단계 전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방인인 우리도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술사 시몬의 계열로서 속이 썩은 사과인지 에디오피아 내시의 계열로 맛이 예쁜 사과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함에 있어서 두 계열의 사람들을 만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근본적으로는 속이 썩은 사과 계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8장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할 때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인격은 부패하여 썩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전적 부패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맛이 예쁜 사과로 여기시는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집사람이 사과를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과가 담겨있던 봉지에 “맛이 예쁜 사과”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맛이 좋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맛이 예쁘다는 것은 뭘까 해서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과 하나를 꺼내서 보여주는데 사과 껍질에 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껍데기는 예쁘지 않아도 속은 알차고 맛있는 사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부패한 인격이라는 껍질을 지니고 있으나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맛이 예쁜 사과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 기록된 에디오피아 내시의 계열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면서도 겉과 속이 모두 썩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술사 시몬의 계열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8장 23절에서 마술사 시몬을 가리키며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된 자였습니다. 성령을 받고자 적극적으로 빌립 집사님을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베드로는 저주에 가까운 질책을 하게 됩니다.

한편 본문에서는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던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 남쪽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사마리아로부터 거의 130~14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다만 성령님께서는 단지 빌립을 가사로 가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39~40절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고 하였습니다. 가사에서 에디오피아 내

시에게 세례를 준 직후에 성령님께서 빌립을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순간이동이라도 하듯이 돌연히 자취를 감추고, 가사에서 40km 떨어진 아소도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다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130~140km나 떨어진 가사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빌립은 그 먼 거리를 며칠에 걸쳐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가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세례를 주고는 금세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본문 27~28절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 말하기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에디오피아에서는 모계에 따른 왕위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여왕이었고 이러한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였다는 것은 재무장관과 마찬가지인 중요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리에 내시를 쓴 이유도 지도자가 여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를 담당하는 자는 여왕의 최측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치정문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내시를 기용했던 것입니다. 혹은 애초에 재무장관으로 삼기 위해 능력 있는 남자를 골라서 내시로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시는 신체적 특성상 성인 남성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총회에서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던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내시는 이집트를 통과해서 시내산이 있는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시였기에 성전 가장 외곽에 있던 이방인 뜰에서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 가장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이고 심지어 유대교에서 꺼려하는 내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설령 유대교 신앙을 공인받아 유대인으로 전향한다 할지라도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이방인의 뜰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높은 관직에 있었던 특성상 재력이 있었기에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된 성경을 일부 구하여 돌아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읽게 된 부분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메시아 수난을 다룬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었고 난처해하던 찰나에 빌립 집사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은 이사야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것을 전하였고, 이에 탄복한 내시는 세례를 받아 교인이 되기를 바랐고 빌립은 이에 응하여 세례를 줍니다. 이 일을 마친 후에 빌립은 홀연히 사라져 아소도 지역으로 순간이동을 하게 되고 내시는 기쁨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이러한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와 대조적입니다. 이들은 둘 다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빌립 집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것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는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빌립 집사님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에 놀라고 부러워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마술사 시몬이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나 그리스도 연쇄과정에 대한 증언을 빼놓지 않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의 관심은 그리스도 연쇄과정이 아닌 그로부터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에 있었습니다. 그 권능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을지에 열중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사나 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메시아 수난에 대한 예언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여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던 차에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모든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특별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부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과 성령의 권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서 처음으로 그가 만나는 내용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세상에서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예언부분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로부터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증언되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며 그 인자 예수님 안에서 영화로운 광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관계하기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을 들은 내시는 그 자리에

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마술사 시몬은 계속해서 놀랐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쁨을 안고 귀국길에 오른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놓고 이 두 인물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과 하늘의 경계선 위에 서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나가면 부활과 승천과 천상의 보좌 우편까지 길이 나있고, 보좌 우편의 인자 예수님 안에서 영화로운 광채이신 하나님과 마주대하며 관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천상의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의 실제를 이 땅에서 증명하는 수단으로써 눈에 보이는 기사와 표적이 주어진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확실한 현실로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이러한 기사와 표적들을 보면서도 십자가 너머 부활로 시작하여 천상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 내용에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경계선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세상 안쪽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십자가 너머의 부활 이후에 있는 천상의 현실은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에서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세상을 탈출하는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천상의 상황에 참여하는 복음의 핵심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정리해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이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갇혀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과 성령의 권능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마술사 시몬은 이 세상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사회생활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교양인과 세상의 형통과 번영을 위하여 불가사의한 능력을 추구하는 마술 애호가를 대표합니다. 즉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세상을 담은 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마술사 시몬을 조상으로 삼은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세상을 탈출하는 연쇄과정의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사와 표적과 성령의 권능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탈출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의 총회에 속할 수 없는 신체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는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우리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연쇄과정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참 교인이라면 에디오피아 내시의 계열을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마술사 시몬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앞뒤로 제시하며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디오피아 내시의 계열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일 때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던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마술사 시몬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마음이 세상을 버리고 탈출하는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시는 어떤 방법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결함을 지닌 상태입니다. 불도장으로 낙인을 찍으면 평생 제거할 수 없듯이, 내시는 평생 제거할 수 없는 낙인을 몸에 가진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여왕인 간다게의 재무장관으로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누구도 부러워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시가 참 교인의 선두에 있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육체의 결함이나 육체로 인해 생기는 모든 상황은 다 사과 껍질에 불과합니다. 사과의 과육에 해당되는 부분은 육체가 아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마음은 세상을 떠나서 천상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하게 됩니다. 마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내용이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껍질은 흠이 있으나 속은 무척 맛있는 “맛이 예쁜 사과”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 이름을 붙잡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을 구한다는 것은 겉은 멀쩡해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먹을 곳이 없는 “속이 썩은 사과”의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을 향해 회개하라 책망합니다. 회개해서 에

디오피아 내시의 계열로 들어설 수 있다면 껍질과 속살이 구분되는 “맛이 예쁜 사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에 연합함으로써 부활의 자리에 이른 것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게 되고 위의 것을 찾으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직접 보았던 일들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나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삶에는 낙인처럼 지워지지 않는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함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만 하는 숨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마음에서 결함이 있는 육체나 세상의 삶은 껍질에 불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사과의 껍질을 깎듯이 내 마음으로부터 육체라는 껍질은 깎이게 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하였습니다. 할례는 양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과의 흠 있는 껍질을 깎아 과육만을 남기듯이, 흠 있는 육체를 깎아내어 온전한 마음만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육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껍질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도가 되어서 마음으로부터 육체와 관계된 모든 차원을 사과의 껍질을 깎듯이 깎아내는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일이라면 가족관계조차도 껍질입니다. 장애도 껍질입니다. 사회적인 평가나 위치도 껍질입니다. 설령 성범죄자가 발찌를 차고 다니고 전과자가 되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벗어낼 수 없는 결함이 아닌 깎아내야 하는 껍질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기는 육체와 육체의 차원에서 생기는 모든 일을 껍질처럼 깎아내는 일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은 십자가 너머 부활과 승천에 이르러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삶의 내용으로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맛이 예쁜 사과”의 상태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집사람이 과일을 깎아주다가 전화라도 오면 아이가 다칠까 염려하여 칼을 치우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받고 오면 영락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가 깎아둔 껍질을 입에 물고 빨고 있습니다. 깎아둔 과일을 먹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꼭 껍질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꼭 우리의 삶을 연상시킵니다. 이 세상의 삶이란 마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칼로 깎아내야 하는 껍질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속이 썩은 사과"였던 우리는 "맛이 예쁜 사과"로 살아나게 됩니다. 육체와 삶이라는 껍질을 깎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과일과 다른 점은 과일의 껍질은 버려질 수 있지만, 우리의 육체와 삶이라는 껍질은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당신의 뜻대로 사용해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칼로 육체와 삶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세례를 받은 내시는 기쁨으로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내시는 흠 있는 육체로 평생을 살며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기쁨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집에 가도 내시였고 궁궐에서도 내시였으며 길을 가도 내시였습니다. 그 높은 관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내시가 만났던 예수님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권능의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로서 죽으시고 세상을 탈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도가 되어서 내시의 육체와 삶이라는 껍질을 깎아내게 됩니다. 내시라는 제거할 수 없는 평생의 결함이 마음에서 분리되자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육체와 삶의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평생 그 결함을 안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자아의식을 갖고 날마다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럴 때 사과 껍질이 벗겨지듯이 마음에서는 육체와 삶의 차원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맛있고 과즙이 넘치는 사과의 과육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천상에서 영화로운 광채이신 하나님과의 관계하기에 올라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기쁨으로 귀국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라타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되 마술사 시몬처럼 세상의 교양 교인이나 마술 애호가

교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랬었다면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세상 껍질 벗겨낸 마음으로 천상을 현실로 느끼며 “맛이 예쁜 사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는 모두 흠과 결함과 결핍과 극복할 수 없는 육체적 차원의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껍질을 벗겨내게 하시고 마음은 부활하여 새 살로 채워진 사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운 광채이신 하나님과의 관계하기에 올라타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